

◇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에서의 폐생검

이석열, 정운섭, 염옥, 이길노

순천향대학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에서 병의 확진과 함께 질병의 진행상태, 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폐생검은 아주 유용하다. 저자들은 폐생검을 받은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94례에 대하여 임상분석을 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

방법 : 1985년 1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순천향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미만성 폐질환으로 폐생검을 시행받은 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분석을 하였다.

결과 : 남녀의 발생비는 남자에서 많았으며 1995년까지는 최소 개흉술에 의한방법으로 1996년 부터는 비데오 흉강경을 이용하여 폐생검을 실시하였다. 폐생검의 위치는 우측보다 좌측이 많았으며 생검결과 UIP가 제일 많았다.

결론 :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의 폐생검은 침습적인 진단방법이지만 가장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하여 적절한 치료방법의 수립에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.

책임저자: 이석열(순천향대학병원 흉부외과) 발표자: 이석열(순천향대학병원 흉부외과)